

# 外人 공매도 타깃 된 바이오株... 한국판 게임스톱 재현 조짐

이들간 공매도 규모 1조9705억 주체별 비중서 외국인 86% 달해 셀트리온·씨젠 등 공매도 직격탄

게임, 삼천당계약 외인반격 매수 한국판 게임스톱 본격화 촉구도

공매도 시장이 재개장되자 셀트리온과 씨젠 등 바이오 종목에 공매도 수요가 쏠리고 있다. 주범은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매도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바이오주를 위주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어 개인투자자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 공매도 비중 86%...바이오주 타깃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4일 이틀간 거래된 공매도 규모는 총 1조970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외국인으로부터 거래가 이뤄졌다. 외국인은 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3486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도 3572억원 규모를 공매도했다.

두 시장을 합한 외국인의 공매도 규모는 1조7058억원에 달한다. 지난 이틀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5218억원 순매도 했으니 현물시장보다 공매도시장에서 적극 매도에 나섰다 볼 수 있다. 전 거래일 투자주체별 공매도 비중을 살펴보면 외국인 86.11%, 기관 12.32%, 개인

〈전 거래일(4일) 시장별 공매도 거래대금 순위〉 (단위: 원)

순위	코스피	코스닥
1	셀트리온 611억	씨젠 239억
2	카카오 279억	카카오게임즈 147억
3	LG디스플레이 265억	파라다이스 105억
4	금호석유 222억	케이엠더블유 86억
5	HMM 203억	에이치엘비 54억
6	기아 173억	비에이치 39억
7	SK텔레콤 151억	SFA반도체 33억
8	넷마블 140억	셀트리온헬스케어 31억
9	SK바이오팜 137억	컴투스 27억
10	한국조선해양 137억	다원시스 27억

/한국거래소

1.57%로 나타났다.

주요 표적은 바이오 종목이다. 이틀간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셀트리온으로 1321억원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씨젠이 528억원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 종목 모두 이틀 연속 소폭 상승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공매도를 기록했다.

지난 3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전 거래일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던 22개 종목을 살펴보면 신풍제약, 삼천당제약, 텔론RF제약, 에스티팜 등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 12개에 달한다. 모두 지난해 주가가 폭등했던 종목들이다.

바이오주는 대표적인 성장주다. 확인된 실적보다 연구·개발(R&D) 역량

이나 신약 파이프라인 등 향후 성장 기대감이 주가를 좌우한다. 증권가 신조어인 PDR(꿈 대비 주가 비율·Price to Dream Ratio)의 대표주자인 만큼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 공매도의 집중 타깃이었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공매도는 헤지가 목적으로 풀이된다.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주식시장에 투자하며 정반대로 볼 수 있는 공매도를 취해 위험도를 낮추는 것을 뜻한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선물 등 차입 거래 수단이 많은 코스피와 달리 선물로 헷지가 어려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많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바이오주가 많다"

고 설명했다.

◆한국판 게임스톱? 뿔난 개미 공매도와 대립각

외국인이 발 빠르게 공매도 거래에 나서자 개인투자자의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다. 공매도 재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 다시 공매도를 막아야 한다는 항의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한국판 게임스톱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그러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던 삼천당제약이 주인공이다. 하루 거래량이 10만~20만주에 불과했던 삼천당제약의 공매도 수량은 3일 하루 동안 9만6722주에 달했다. 공매도 재개 첫날 외국인의 타깃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공매도 영향으로 약세 마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가는 반등했다. 삼천당제약의 3일 종가는 전일보다 1600원(3.09%) 반등한 5만3400원에 장을 마쳤다. 개인투자자가 11만8000주 넘게 사들이며 외국인 공매도에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셀트리온과 씨젠 등 공매도가 집중된 주요 종목 투자자들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 주주 게시판에는 "주주연대가 응집해 공매도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게임스톱 운동을 본격화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방향성엔 영향 無...바이오주는 '좀 더'

증권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바이오 종목은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이 더 클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글로벌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팽배한 데다 국내 수출 실적 등 이익 개선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로 개별 종목과 업종, 나아가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증시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공매도가 시장 방향성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로 4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차바이오텍, 주성엔지니어링 등 2건에 그쳤다. 전날에는 22개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경험상 공매도는 수급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면서도 "이번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으로 한정됐고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가능 종목의 이익 모멘텀이 강해 계속 매도 압력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영향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종목별로 나타날 것"이라며 "코스닥 바이오 종목은 공매도에 따른 영향력이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13건 '과태료'

금감원 2018년 회계연도 점검 위반 총 28건... 전년비 38%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8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회사가 19개사며, 대표자·감사 각 1인과 회계법인 7곳이다.

이번 점검은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 수준인 것에 비해 37.8% 감소했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회사유형별로는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한 곳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비상장법인이다.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는 이행하고 있었지만 관리직 인력 부족과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자산규모별로는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나 당기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줄어 이후 연도

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할 유인이 없는 회사가 많았다.

영업상태 역시 폐업하거나 당기 혹은 익년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소규모·한계기업이 11개사에 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13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하는 내부통제"라며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상미기자 smahn1@



반도문화재단, '가족사랑 그림사진' 수상작 전시회  
반도건설이 설립한 반도문화재단의 '제2회 반도 가족사랑 그림사진공모전-수상작 전시회'가 5월 2일부터 23일까지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아이비라운지 갤러리에서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본 공모전은 5월 가정의 달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문화 여가활동을 즐기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반도건설

## DL이앤씨, 호주 플랜트 시장 진출 첫발

현지 리크릭 에너지와 HOA체결

DL이앤씨가 호주 플랜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DL이앤씨는 호주 리크릭 에너지와 암모니아와 요소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업무협력 합의각서(HOA)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다음달까지 세부조건 협상 및 본계약 체결

을 완료하고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수주금액은 약 3000만달러로 예상된다. DL이앤씨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암모니아 생산공장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사업에서 독점권을 보유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사업주가 생산하는 합성가스를 원료로 중간생산물인 암모니아를 제조한 다음에 이를 활용해 연간 100만

톤의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 사업이다. 현장은 남부 호주의 주도인 애들레이드에서 북쪽으로 550km 떨어진 리크릭 광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앞으로 약 1년 동안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주가 진행되는 이 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수주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 KB證, 해외선물 캐쉬리워드·수수료할인

KB증권이 오는 6월 25일까지 약 8주간 해외선물 '캐쉬리워드·할인 수수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월 진행한 '지수·통화 해외선물 거래 이벤트'에 대한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신규고객 할인 수수료 혜택 뿐만 아니라 우수고객에게는 캐쉬리워드 혜택까지 제공한다.

캐쉬리워드는 전체 거래 고객 중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누적 계약수에 따라 캐쉬리워드를 제

공하며, 구간별 계약수는 KB증권 기본 수수료(5.9달러 당 1계약)를 기준으로 환산 적용된다. 단, 제세공과금 22%는 고객 부담이다.

또 할인 수수료는 신규 개인고객 및 작년 11월 2일 이후 거래가 없었던 장기 미거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CM E거래소 주요 마이크로 상품과 일반·미니 해외선물상품에 대한 온라인(HTS·MTS) 수수료 할인 혜택을 이벤트 기간 내에 우선으로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제공한다.

/박미경기자